복고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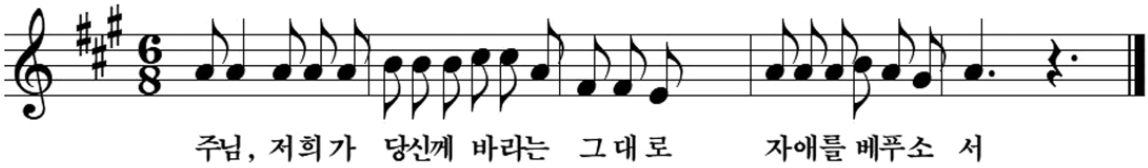
본당의 해 Ⅱ (2018-2020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2020. 3. 8. 사순 제2주일

호혜공소(남평 본당)

제1독서 창세 12,1-4ㄱ **제2독서** 2티모 1,8ㄴ-10 **복음** 마태 17,1-9

화 답 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2097호] 발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 전자우편 hongbo@gjcatholic.or.kr | 전화 062)380-2811 www.gjcatholic.or.kr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 사랑합니다.

아마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염둥이(?) 어린이 시절, 오늘의 말씀만 나오면 남진님의 '님과 함께'가 생각난다며,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시던 신부님이 생각납니다. 당시에는 "저게 뭐야! 아재개그도 아니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찰떡이 없구나!"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 년 살고 싶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딱 이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님께서 내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다면, 우리 역시 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결과인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전례,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성가, 수많은 신자들의 화답 소리, 이미 다 차려진 밥상과도 같은 미사, 행사, 모임에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늘 귀염받는 그런 곳에서, "살맛나네!"를 외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곳에, 더 어려운 곳에서 예수님을 찾기란 요원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한군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당신의 사랑을 느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서 그 사랑을 전하길 바라십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기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마련하신 주님의 집은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들과, 내가 편한 공간에서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그리스도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우리 모두가 세상이라는 터전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말을 듣고 따르며, 사랑하는 복된 삶이기를 희망해봅니다. 아멘.

김안식 세례자요한 신부
군종(흑룡 성당)

조선(CHOSEN : 선택받은)인들[2] VI

2,200만 백성의 쾌활한 이야기

1940년 5월
패트릭 오코너 *Patrick O'conner* 신부

한국에서의 교회 지원

이곳 신자들은 대체로 가난하기에 사목자 생활비와 성당 건축에 충분한 봉헌을 하기 어렵다. 또한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개종하기 전에는 확실한 기부를 기대할 수 없는 비신자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회는 인건비와 유지비용을 주로 해외 가톨릭 신자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선교 사업은 멈춰 설 것이다.

그러나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헌금은 상당하고, 그 헌금은 객관적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신자들은 미래에 반드시 자립할 것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있는데, 선교 사업의 목표란 결국 그 지역을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교회를 지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개종자들의 개종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난한 새신자에게 가르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의 골롬반회 사제들은 성당이나 경당을 지을 때 한국인들이 부지나 부품들을 기부하거나 노동을 제공했다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수년 전 목포성당 건물을 수리했을 때는 신자들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봉헌했다. 순천에서는 신자들이 제대와 종을 봉헌했다. 사랑의 딸 수도회 회원 중 한명이 성수대를 봉헌했다.

나주 지역의 공소 세 곳에서는 교리교사들이 건물 지을 땅을 기증했다. 이들은 모두 성당을 위해 무급으로 일하는 봉사자들이다. 장성의 한 예비신자[3]는 학교, 성당, 사제관을 지을 땅을 기증했다. 그의 기부는 미국 돈으로 600내지 700달러 가치에 해당한다.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매달 20내지 50센(*Sen*)을 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돈 엔(*Yen*)을 사용한다. 중국에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평시에는 1엔이 약 3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1센은 약 1/3 센트이다. 많지는 않지만 유복한 한국 가정은 일년에 40, 50내지 100엔까지도 봉헌한다. 내가 방문했던 한 본당의 봉헌금 평균은 한집당 1엔이다. 이 금액을 달러로 환산하는 대신, 남한의 노동자가 하루에 45-50센을 번다고 말하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수치도 평시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Francis Kim . . . baptized, 1937

나는 목포역에서 무거운 여행가방을 기차에서 내리려고 한국인 짐꾼에게 맡긴 적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신부들과 교리교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짐꾼은 여행가방을 마차에 실었고, 나는 그에게 3센트가량 되는 10센을 그에게 주었다. 잠시 후 그가 내게 돌아왔고, 나는 뭐가 잘못되었나 어리둥절해 했다. 그는 내게 5센의 거스름돈을 주려고 돌아왔던 것이다!(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사목활동의 성과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썼고, 이를 실은 잡지다.

2) "*The CHOSEN People*"(1940년 5월), p.4-7.

3) 김익진(金益鎭 프란치스코: 1906-1970): 목포의 유지인 김성규(金星圭: 장성군수, 무안감리 등을 역임)의 셋째 아들로 목포에서 출생하였다. 맏형 김우진(1897-1926, 한국의 신극 창시자)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1929년 현해탄에서 가수 윤심덕과 함께 동반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한 그는 우연히 접하게 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전기에 감동을 받고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36년 목포에서 가족과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하였으며 1937년에는 프란치스코 제3회에 가입하였다. 유산으로 상속받은 장성 땅을 광주지목구에 헌납하여 장성성당을 건립하였고, 해방 이후 자신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분배하고 가산을 정리하여 광주교구에 헌납하였다. 1948년 대구로 이주하여 교육자와 문필가로 활동하였으며 주요 저서로 『동서저편』(1971), 『민속과 서학』(1971), 그리고 번역서로 『레지오 마리애 직무수첩』(1956), 『동서의 피안(彼岸)』(1961), 『동방문화와 공교(公敎)』(1965), 『내심낙원(內心樂園)』(1966) 등이 있다.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최철성 라파엘 신부 / 방림동 본당

"나는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듯 오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아우구스티누스–

저는 다른 신부님들보다 늦게 신학교에 입학했고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저는 늦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주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된 저에게 신자분들이 물어봅니다. 신부님은 모태신앙이셨냐고?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희 집안은 가톨릭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 성탄 때 과자를 받으러 성당에 처음 나가면서부터입니다. 그 뒤로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지셨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사춘기 친구들처럼 성당을 다녔다 다니지 않았다를 반복하면서 중고등학교 시간을 보냈고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대학에 싫증을 느끼고 군에 입대하면서 저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까지 모임도 나가보고, 수도회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수도회도 찾아가 보고, 20대 중반에는 신학교를 가보고 싶다고도 생각해서 예비신학교도 기웃거려봤지만 모두 아무런 결과 없이 중간에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앙의 처음부터 이 시기까지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신경 써 왔습니다. 복사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예신을 나갔으면 좋겠다,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수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등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주변에 잘 보이기 위해 제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움직였습니다.

주님을 알기는 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자신만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보다 주님을, 주변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로 가득찼던 제 자신을 조금씩 비워내고 주님을 채워나가니 주님께서 다시 저를 불러 주셨고 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된 사제의 길이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법을, 주님을 모시고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 안에 모시고 한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교구 긴급지침 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의 생명존중 정신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및 교구민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구 내 각 본당과 기관의 미사와 모임을 3월 22일(주일)까지 중단 연장**합니다. 다만, 3월 16일(월)부터 열리는 주교회의 춘계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이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주일미사 의무를 관면하는 대신 **대송으로서** 집에서 묵주기도, 성경봉독(말씀 전례), 선행 등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4조 4항).
이와 관련하여, 교구는 특별히 박해와 성직자 부족으로 인해 미사를 봉헌하지 못했던 초대 한국교회 때처럼 미사에 대한 교우들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교구장 대주교님과 총대리 주교님, 사무처장 신부님이 집전하는 주일미사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교구(www.gjcatholic.or.kr)와 광주가톨릭평화방송(www.kjpbc.com)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계획이오니, 이 미사에 함께 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 3. 8(사순 제2주일)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집전 미사
- 3.15(사순 제3주일) 총대리 옥현진 주교 집전 미사
- 3.22(사순 제4주일) 사무처장 이종희 신부 집전 미사

또한 3월 9일(월)부터 미사 중단 취소 결정 때까지는 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 평일 방송미사를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라디오(광주 99.9Mhz/ 여수 99.5Mhz, 음성)는 매일 오전 10시30분에, 영상은 교구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 미사 중단으로 인해, 직접 영성체를 하지 못하지만 대송(특별히 방송미사) 중에 "내 안에 주님께서 머무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마음"으로 신령성체(神領聖體, 실제로 영성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마음으로 하는 영성체) 하기를 권합니다.

다. 다른 사항은 지난 공문을 통해 알려드린 긴급지침(천광교-20-018, 2020.2.22.)을 그대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미사가 중단되는 동안 교구 빛고을 주보는 인쇄되지 않으며, 대신 교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감염속도가 확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감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느님을 믿으며, 기도 안에서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지혜롭고 강건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연기 안내

- 아버지학교 성요셉 대축일 미사 취소
- 가정분과 연수 취소
- 전례봉사자 교육 취소
- 카나혼인강좌 취소
- 제 32차 부부여정 잠정 연기(추후공지)

문의 : 062) 380-2834

피아골피정집

주방 조리원 채용공고

대상 : 세례 3년 이상, 급식 근무 경력자
근무여건 : 숙소제공, 4대 보험
문의 : 061) 782-50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곤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대천사 라파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om FM 99.9MHz FM 99.5예수MHz
페이스북 kjpbc99.9mhz 트위터 kjpbc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3.9(월)-11(수) 장승용 신부(쌍암동 본당) / 3.12(목)-14(토) 고진호 신부(노대동 본당)

김권일 신부 인문학 특강 연기 안내

광주가톨릭평화방송에서 3.12(목), 3.19(목) 두 차례 마련할 예정이었던 '김권일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특강'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일미사와 주일미사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시청하세요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평일미사, 주일미사 중계 안내〉 **방송 일시 : 3.9(월)-22(주일) 10:30**
시 · 청취 방법 : 라디오 청취와 SNS(페이스북, 유튜브) 시청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새 어플 'cpbc빵'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1.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cpbc빵' 어플을 내려 받은 뒤 '광주'로 지역 설정을 합니다.
2. 왼쪽 상단 '≡' 클릭→하단 '⚙' 환경설정 클릭→'로그인' 클릭→'가입하기' 선택 후 회원가입 진행→실명인증

종교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월-금 14:00)'와 시사프로그램 '함께하는 세상, 오늘(월-금 17:00)'을 'cpbc빵' 어플로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빵톡(대화방)-회원들만 사용가능'으로 보내주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의 새 어플 'cpbc빵'의 회원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 가톨릭갤러리 현 | 책더하기사랑 도서관 T. 062) 380-2218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구지침에 따라 1학기 개강을 3.23(월)부터 연기하여 진행합니다.

2020년 1학기 수도자아카데미 수강 안내(개강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일시] 1강-3.24(화) 10:00-12:30 [주제] 르네상스시대의 화가들과 삶!
[강사] 옥현진 주교 [대상] 수도자, 축성 봉헌생활자, 교구사제, 평신도 [수강료] 1만3천 원

2020년 1학기 수강생 모집

교리신학원 한국교회사/신론/성서입문/오경/교리교사양성학교 **신학 · 영성** 생태영성학교/수도자아카데미
성경 화요신약성경 **철학** 현대철학사/철학고전읽기 **어학** 스페인어/주부영어교실 **미술** 교회미술
자격 장례지도사/가톨릭상담심리사/인지활동지도사/웃음지도사/미술상담심리사/우리춤체조/커피프로마스터
무용 실버성가무용/전통무/우리춤(작품반 · 창작반)
교회음악원 성음악사/음악기초이론/그레고리오성가Ⅰ/성가합창발성법Ⅰ/지휘/오르간(전문)/화성학Ⅰ/교회음악원합창반/그레고리오성가합창반 **음악** 가야금/민요/판소리고법/색소폰/클라리넷/바이올린/플루트/발성명가곡교실/성악/통기타/클래식기타/피아노/오르간(일반 · 성가반주)/대금/오카리나/난타
교양 음악심리;한박자쉬고/가톨릭공예(양초 · 조각초 · 매듭묵주)/사진교실/시낭송을통한감성스피치 해설이있는클래식음악감상/생약초와정원코디네이터

'영화로 성경읽기' 수강 안내(개강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일시] 3.25(목), 주간 : 14:00-16:00, 야간 : 19:00-21:00 [수강료] 4회-5만 원 [주제] 아브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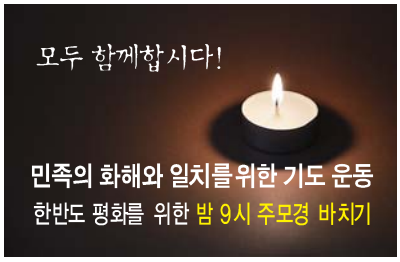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 둘'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병원시설,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 둘' 회보 발송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회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